

[수필]

리춘자

그때의 설날이 그림다

어린시절 우리는 해마다 설날을 손 짊어 기다렸다. 어른들은 한살을 더 먹어 빨리 늙어간다고 싫어했지만 우리는 빨리 크기를 바라며 며칠 밤 자지 못했다. 설날이 돼야 새옷을 얻어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으며 폭죽도 터치우고 친척들이 모여 재미나게 보낼 수 있었다. 할머니가 아직 생전일 때 우리 가문에서는 해마다 설을 농촌 할머니네 집에 모여서 쇠었다.

그때는 두터운 솜옷을 입지 못해서 인지 세말이 되면 지금보다 더 추웠던 것 같다. 설날그믐날이 되면 아버지는 온 집 식솔을 이끌고 별벌 땔매 할머니 집으로 떠나갔다.

할머니네 집은 연길에서 20여리 떨어진 조양천 광석촌에 있어 미리 뺨스표를 끊어야 했다. 표를 끊지 못할 때면 우리는 물건을 이고 지고 20여리 길을 걸어야 했다. 얇은 솜옷을 입고 헌 운동화를 신은 데다 장갑도 끼지 못하다 보니 할머니 집에 가고 나면 손발이 얼어 올 때도 있었다. 날씨가 추워 걷기 힘들 때는 조금 걷고 때질을 쓰기도 하였다. 운이 좋은 날에는 할머니네 집 방향으로 가는 군사훈련하는 해방군아저씨들의 차를 만나 탈 때도 있었다.

그날도 춥다고 우리가 때를 쓰는데 엄마가 멀리에서 차 한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더러 빨리 손을 흔들라 하였다. 우리가 고사리같은 손을 저으며 “해방군아저씨! 해방군아저씨!...” 하며 부르니 마음씨 고운 아저씨가 차를 세워줘서 할머니 집까지 무사히 갔다. 때론 할머니네 마을에 사는 고마운 이웃 할아버지를 만나 소수레에 앉아갈 때도 있었고 할머니네 마을에 있는 상해 지식청년들이 연길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돌아가는 마차에 앉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걸어야 했다.

할머니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침민주촌상점과 광석대대합작사가 있었는데 그곳이 우리의 쉼터였다. 우리는 그 두곳에 들려 쫘쟁 언 손발을 녹여야 할머니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은 광석대대합작사에 아버지의 어릴 때 친구가 있어 우리가 추위에 덜덜 떨면서 상점에 들어서면 우리를 당겨다 뜨끈뜨끈한 난로 옆에 앉히고 신발을 벗겨 말려워주고 따스한 물을 따라주면서 몸을 빨리 녹이라고 하던 일이다. 상점을 떠날 때는 애들이 좋아하는 ‘개눈깅’ 사탕 한줌을 꺼내어 우리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60이 다가오는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드문드문 서시장에 가면 ‘개눈깅’ 사탕을 간식용으로 사오기도 한다.

이렇게 설 쇠러 가는 길은 어려웠지만 우리는 매년 고대하고 기대

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아래웃 집에서 사이좋게 지내며 살아오셨다. 큰아버지네는 자식이 여덟이고 작은아버지네는 자식이 다섯명 되었지만 언제 한번 얼굴 뵈히며 싸우는 걸 보지 못했다. 할머니가 큰아버지 집에 계시다 보니 식솔이 열한명이나 되었다. 아버지 외사촌들도 마을에 쫘 널려 살다 보니 그 마을은 우리네 친척마을이었다. 우리는 어른들을 따라 이집저집 설인사 방문을 이틀씩 다녔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네 식솔들은 끝산 바람으로 달려나와 우리를 뜨겁게 마중하고 애들도 좋아라 서로 끌어안고 춤추는 바람에 온 마당은 명절 기분으로 들끓었다.

할머니는 해마다 설준비를 한달 넘게 하셨다. 돼지고기를 사오고 닭을 잡고 콩나물, 녹두나물도 길러야 하고 여러가지 말린 산나물, 들나물 같은 것들도 물에 불구어 손질해 놓느라 분주히 보내셨다.

설날이 되면 수탉이 해를 치기도 전에 녀인들은 일어나 아침 준비에 바쁘다. 큰술가마에 차입쌀을 찌낸다, 시루떡을 찌다, 꿀무떡을 만든다, 료리를 묶는다... 하며 법석거렸다. 언니네들은 물에 퍼지운 콩을 매달에 갈아서 한쪽으로 끓이고 보에 짜고 하며 두부를 만들었다. 나와 동갑이도 일찍 일어나 순대를 하는 어른들을 도와 뽕 랑꿀을 뽕 태실을 준비해 놓고 어른들의 지령에 따라 랑꿀을 쫘쟁 동여매기도 하였다. 쏘씨 빠른 셋째어머니는 식당 일을 몇십년 해온 경험이 있어 집안 군일이나 명절 때마다 볶고 닭고 하는 가마목 일을 도맡아 하다 싶이 하였다.

고모가 김이 문문 나는 가마뚜껑을 열더니 떡썰이 잘 익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할머니는 떡을 치라고 ‘명령’하신다. 큰아버지는 마당에 언병거적을 깔고 떡구유와 떡매를 준비해놓았다. 애들은 떡구유를 둘러싸고 구경을 하고 사촌오빠들이 힘자랑이라도 하듯 성수나게 떡매를 휘두른다.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소래에 물을 담아놓고 떡을 번지느라 바빠 보낸다. 떡매질도 기술이 있어야 한다. 잘못하면 인명사고를 내거나 떡구유를 썰 수 있어 헛바기는 아예 엄두를 못 낸다. 작은어머니는 가마에서 갓 퍼낸 찹쌀밥을 조금씩 우리 손에 쥐여주며 먹으라 했다. 우리는 그 찹쌀밥이 너무 맛있어 아담아금 먹으며 달아다녔다.

떡매소리가 몇자 떡이 다되고 밥상이 차려진다. 상을 차리기 전 애들은 한줄로 서서 할머니에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오래오래 받으세요.” 하며 앞다투어 설인사를 올린다. 아들, 며느리, 딸, 사

위... 스물한명이나 되는 손자손녀들 에 그 손자손녀들이 시집 장가 가서 불어난 식솔까지 거의 50명이나 되었다. 구들에 둘러앉은 자손들을 바라보며 연한 회색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하얀 사각수건을 삼각으로 접어 치신 할머니가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우리 자손들이 올해에도 모두 건강하고 농사도 풍년이 들겠다.” 하며 매우 기뻐하셨다.

웃목엔 남자들이 앉았고 아래목엔 녀자들이 앉는다. 큰 상 세개를 차려두 모자라 우리 아이들은 온돌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할머니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는 설과 생일이면 꼭꼭 새하얀 만두와 파배기, 밀국수를 가득 사가지고 갔다.

저녁밥까지 배불리 먹고 나면 큰오빠는 오락활동을 조직한다. 장손이라고 사회하는 큰 ‘권리’를 가졌다. 설이면 의례 집집마다 노래와 춤 등 장끼자랑할 준비까지 해가지고 가야 한다.

농사일만 해온 할머니는 노래도 춤도 잘 모르지만 해마다 자손들의 한결같은 채정 소리 속에서 춤을 췄다. 주제가도 없이 할머니는 손벽 한번 친 후 팔꿈치를 엇바꾸어 점었다 췄다 하며 춤을 추었는데 우리는 ‘팔꿈치춤’이라 하였다. 어찌 보면 일본춤 같아 보였으나 모두들 잘 춘다고 할머니를 칭찬했다. 이때면 젊은 녀인들이 일어나 두 팔을 흔들며 춤을 추며 응원해 나선다. 남자들은 물을 담은 함치와 소래에 박바가지를 얹어놓고 손으로 두드르기도 하였으며 유리병에 손가락과 저가락을 넣어 흔들기도 하고 랑손에 점시 두개씩 끼고 박자를 맞추면서 응원하기도 했다.

우리 집도 오락 종목을 준비해갔다. 아버지가 노래하고 녀자들은 춤을 추었다. 엄마는 잔등에 머리수건을 넣어 ‘혹’을 만들고 춤을 추었는데 모두들 너무 우습고 재미있었다면서 손벽을 쳐댔다. 나도 처음 보는지라 어디서 저런 춤을 배웠을지 의문이 갔다. 평소에는 몸이 아파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엄마도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느라 장끼자랑을 해보인 것이다. 언니네는 절주에 맞춰 나비처럼 춤을 추고 나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웃음바다 속에서 오락이 끝나면 남자들은 또 유희를 한다.

몇시간을 놓고 나면 밤간식을 먹어야 한다. 할머니는 감자와 고추, 돼지고기 비게 덩어리를 넣고 장국을 끓인다. 구수한 그 냄새에 먹고 싶었지만 맥이 진한 우리는 여기저기 쓰러져 꿈나라에 들어갔다.

할머니네 집은 아래웃방에 고방까지 있어 면적이 컸지만 수십명이 되는 사람을 재울라니 잠자리가 모자라 웃길 작은어머니네 집에 가서 자기도 하였다. 깨끗이 빨아놓은

이불을 우리들이 가서 덮고 깔고 해도 작은어머니는 언제 한번 싫은 소리 없이 우리를 반긴다. 밤이면 우리한테 동화와 우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삼촌들이 많아 너무 좋았던 행복한 기억이다.

시골의 밤은 캄캄하여 변소 가기가 무서웠으나 동갑이 사촌녀동생이 있어 불려 가지고 갔으며 우리 둘은 계속 불어다니다 싶이 하였다.

이들이 지나면 우리들은 모두 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세상물정 모르는 우리는 가기 싫다며 하루 밤 더 놀자고 지청구를 들어낸다. 엄마는 할머니네도 휴식을 해야 한다며 억지로 우리를 끌고 나온다. 살아가기 힘든 세월이지만 떠나올 때면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우리에게 찹떡을 배여서 주머니에 넣어주고 쌀과 남새까지 넣어준다. 마음씨 고운 사촌형제들이 우리를 “방학인데 더 놀다 가렴.” 하며 말리던 반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어제 일이런 듯 귀가에 생생하다.

그렇다. 그때는 설이면 찹떡을 먹을 수 있고 두부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새옷도 입을 수 있어 즐거웠다. 그리고 친척들이 한데 모여 음식을 만들고 그동안의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즐기는 설이 있어 살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80년대부터 생활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90년대에는 뺨스를 타고 다녔으며 지금은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 새옷이 넘쳐나고 맛있는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으니 설은 더는 바라고 기대할 것도 없다. 시장 구경을 하면서 보파리로 사들이는 일이 없어졌고 때도 기계로 치고 두부도 기계로 만들며 음식도 식당에서 먹지 않으면 식당에서 사온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쇠는 설은 재미가 없다. 간단히 먹고는 마작을 놀거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제각기 자기 방에 들어간다. 인정이 점점 멀어지는 시대라고 할가?! 친척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설에 모여도 몇명 안된다. 애들은 세배가 목적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받으러 가는 같다. 이전의 따뜻한 설맛이 없어지니 서운하고 유감스럽다.

설날은 그저 먹고 노는 날이 아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날이어서 살아가는 어른들을 찾아뵙고 친척형제들간에 서로 정을 나누며 후대들에게 민족 가족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희망을 기탁하는 날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릴 때 느껴보았던 설날이 그림다. 그런 전통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서 유감스럽고 인정과 인정, 우정이 넘쳐흐르던 그때의 멀어져간 풍경, 잃어버린 향수와 추억이 한없이 그림고 또 소중한진다.

[시조]

리정희

봄 축제 (외 3수)

겨울의 시린 사연
저 멀리 묻어두고

움트는 새 생명이
향기를 뿜어내니

통통한 버들개지는
봄 구경에 신났네

떡호박

노란꽃 필 때에는
눈길도 안 주더니

누렇게 익어가니
누구나 좋아하네

늘어서 사랑을 받는
너희처럼 익으리

로년의 삶

서산에 달자마자
미끄럼 치는 해야

너의 빛 향홀하여
산마루 불에 탄다

로년의 빛나는 삶도
너희처럼 익으리

할미꽃

동년에 늙었느냐
등 구분 꽃송이들

머리엔 때아니게
서리빛 비졌어도

꽃잎에 비낀 홍조빛
황혼빛을 빛내네

[수필]

박병선

만남이 꽃을 피운다

꽃이 아름답듯이 만남도 아름답다. 가족시간의 만남은 더욱 그렇다.

몇년간 해외생활을 하다가 집에 왔을 때였다. 중학교를 다니는 딸에 엮건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고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눈길도 주지 않고 길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하듯 했으며 묻는 말에나 마지못해 대답하곤 했다. 씩씩하기 그지없었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전처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만남 자체가 효도하는 길이라는 말이 있다.

얼마전 폰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나에게는 자식 셋이 있는데 그들이 언제 고향집에 왔고 얼마 동안 묵었다는 기록부가 있습니다. 또 ‘집에 자주 와보는 자식상’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일년에 한번 오면 왕복 차비와 천원을 주고 두번 오면 왕복 차비와 이천원을 주고... 이렇게 오는 차수가 늘어날수록 왕복 차비와 천원씩 더 없어줍니다. 대신 일년에 한번도 오지 않는 자식들한테서는 생활비와 일년에 만원의 ‘벌금’을 받아냅니다.”

자식과의 감정 교류가 오죽 그리웠으면 그랬을까? 자식들을 목마르게 기다리다 혈육의 정에 고갈이 든 마음의 발로이리라.

남방 모 회사의 요직에 있는 한 후배가 몇년전에 겪은 일이다. 어느 한번 부친의 병이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회사에 청가를 맡을 겨를도 없이 그 자리로 고향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보름 만에 부친의 병이 호전되어서야 그는 회사로 복귀했다.

“회사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걸 손금 보듯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잘 알지요. 부친께서 병환에 계시는데 어떻게 가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돈 벌 시간은 많지만 부모님을 뵈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장의 물음에 그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며칠후, 부서 책임자를 임명하는 직원회의에서 회장은 원래의 경리 후보자 대신 후배를 경리로 임명했다.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회사를 실속있게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 당선된 경리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감동에 넘치는 회장의 제안에 장내는 열렬한 박수소리로 들끓었다. 그리고 그달 월급도 한푼도 굶지 않고 그대로 지급받았다.

30여년전, 아버지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너의 엄마는 어제 밤 꿈에서 네가 좋아하는 기장밥과 곱돌장을 끓여놓고 너를 기다렸단

다. 이런 말을 하는 너의 엄마 눈에서는 이슬같은 눈물이 반짝이더라. 나도 요즘엔 일하다가 담배쌈을 할 때면 웬일인지 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서 삼삼거린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점점 늙어간다는 표징이 아니겠나?...”

이튿날, 나는 간다는 기별도 없이 고향행 첫차를 탔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며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나의 인사말에 부모님은 전혀 생각 밖이라 되려 놀라는 표징이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나? 온다는 말도 없이... 네가 오려고 이른아침부터 까치가 앞마당 울바자에 앉아 울었나 보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운 엄마는 이 아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어디 아픈데는 없나? 동료들과 잘 어울리거라. 남의 신세를 졌으면 잊지 말고 꼭 갚거라. 나이 너의 신세를 진 건 잊어버려라. 언제 어디서든지 남을 위해 덕을 쌓고 살아야 한다...”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다 나니 늦은 밤중에야 엄마는 어른이 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드셨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어제 밤 꿈에 너와 함께 공원에 가서 여직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네라. 어찌나 즐겁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취직한 지 2년 밖에 안되 어 바쁘다는 핑계로 일년에 겨우 한번꼴로 설명절에나 부모님을 찾아뵈 었던 나였다.

이후부터 나는 설명절의 일년에 네댓번은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아버지께서 보내온 또 다른 편지 내용이다. “...너와의 자주 되는 만남은 시들어가는 풀처럼 앞날이 줄어들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만년의 우리 삶에 앞마당에 피여난 나팔꽃처럼 한결 이채를 돋구어주었다...”

아무리 사업이 중한들 부모님 찾아뵈기보다 사하라. 사업은 뒤로 미루었다가 다시 할 수 있지만 부모님 찾아뵈기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없다. 부모님 찾아뵈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자.

오늘날 우리가 날개 굳어져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비 올 때는 우산이 되어주고 해별이 쨍쟁 내리쬐릴 때는 양산이 되어 주고 강을 건널 때는 디딤돌이 되어 준 덕분이 아니겠는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이다. 부모님들의 오늘이 우리들의 래일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부모님들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식들에게 효성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도 효의 실천이 아닐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넘어가는 저 해님을 놓아보내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노을로 피우며 그분이 가시는 길을 웃어야 합니다 어차피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겠지요 다시는 아니 오는 날이지만 올 한해 남겨준 추억만으로도 정녕 그리운 날이었지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떠나가는 저 해님의 손을 놓아야 합니다 깊은 통곡을 내면에 감추고 령혼의 깊은 곳에 저 해님의 마지막 온기를 다져넣어야 합니다 진정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해님을 웃어야 합니다 묵은 세월을 딛고

· 시 ·

김학송

24년, 해님이 (외 2수)

바야흐로 떠오르는 새해를 위해
자, 그래도 우리는
저 해님의 뒤모습 향해
기쁨의 손을 흔들어야 합니다

새해 아침에

황사가 시야를 가리니
인생이 아리송하다
아우성 소리는
그치지 아니하고
하늘은 포연의
포송줄에 묶여있다

새해여, 새해의 해님이여
비뚤 생각에 얼어붙은
지구촌을 녹여주고
추운 령혼의 골짜기마다
사랑의 해살이
풍요로운 꿈이 되여
흐르게 하소서!

송구영신

세밑에만 울고 싶은 시가 있다
세밑에만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

기다림과 설레임에
헤가 솟는 순간이며
그리운 꽃잎 우에
바람 부는 계절이며

가지 끝에 파르르레
돌아나는 해살이
아직도 그 봄날을 바라보는 건

저물어가는 이 한해의 끝자락에서
또다시 고운 님을
만나고 싶음이라

세밑에만 만지고 싶은
하늘이 있다
세밑에만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